

만경대에서 시작된 성스러운 애민헌신의 길

화창한 4월의 봄날, 만경대교향집을 찾는 사람들의 목걸이 그칠 줄 모른다.

세월의 모진 풍파속에서도 언제나 따뜻한 사회주의 정든 집, 그 품속에서 누리는 인민의 존엄과 행복넘친 삶을 생각할수록 사람들은 누구나 만경대교향집을 더욱 소중히 안아본다.

과연 무엇때문에 이 추녀났은 교향집이 인민의 마음속에 그리도 소중히 자리잡고있는것인지.

오늘도 만경대교향집에 옛 모양대로 전시되어있는 쭈그러진 돌이며 땀한 물동이, 얇아진 망들이며 모지라진 농쟁기들은 청빈하면서도 근면한 만경대일가분들의 생활상을 그대로 엿보게 한다.

그렇듯 극빈한 살림이었지만 뜻은 높아 당시 사람들은 만경대가문을 일러 《청빈하면서도 의절이 강한 가문》이라고 칭하였다.

세상에는 가풍들이 많다. 그 가정마다 자기의 자랑으로 여기는 좋은 가풍들이 있다.

그러나 만경대가문의 가풍과 같이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가정의 가풍은 없었다.



《돈이 없이는 살수 있어도 인덕이 없으면 살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의 할아버님이신 김보현선생님께서 늘 외우곤 하시셨다는 이 말은 그대로 만경대가문의 가정철학이기도 하였다.

애국, 애민, 애족을 가풍으로 삼고 나라와 겨레를 위한 투쟁의 선두에서 용감히 싸우느라 자랑스러운 만경대가문이다.

만경대교향집, 바로 이 집과 더불어 성장하시던 그 나라 수령님의 어린시절 마음속에 가장 아르게 새겨진것은 수난속에 몸부림치는 인민의 모습이었다.

그 인민을 위해 새벽길도 많이 걸으시고 지친의 큰땀을 흘리시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 분투하시는 아버님이신 김형직선생님, 동포형제들을 언제나 따듯이 대해주시며 정과 사랑을 부여하시는 강남척어머님을 비롯한 일가분들의 모습을 보이며 수령님께서서는 인민이 잘사는 나라를 세우야 한다는 결심을 굳히곤 하시었다.

너무도 소박하고 평범하면서도 너무도 불행한 인민이었다.

백앗간 들에도 봄은 오가고 울분을 터치며 남부너대하고 타향으로 흩어져가고 겨레의 친칼전쟁터와 고역장에서 억울한 죽음을 강요당해야만 했던 인민이었다.

그러던 조선인들이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탁월한 령도하에 비로소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어 시대와 력사발전을 떠밀어내는 인민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민위선, 아버지수령님의 한생의 좌우명인이 송고한 지론은 일찌기 만경대가문의 가풍인 애국, 애민, 애족의 정신과 자신께서 성장의 나날에 몸소 체험하신 인민의 귀종함과 인민대중이 지닌

불굴의 힘에 대한 확신에 기초하여 지니신것이였다.

이 세상에서 하느님이란 없으며 이 세상에서 전지전능한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인민대중이라는 수령님의 확고한 신조는 마침내 인민대중중심의 사상인 주체사상의 탄생을 안아왔다.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 있다. 진정 이것이 세상에 제일 귀중한것이 나라와 백성이라는 만경대가풍을 초석으로 하여 아버지수령님께서 내세우신 자주적인민의 새로운 모습이었다.

돌이켜보면 해방전 망국의 울분을 참을수 없어 독립의 길에 나선 사람은 많았다.

하지만 인민과 동떨어져 과정에만 몰두하는 행세식민주주의자들, 일제와 싸워이길수 있는가 하는 물음에 승산은 무슨 승산, 이렇게 버티다가 대국들이 도와주면 독립을 하는것이라고 대담하는 사대주의자들이 장구한 세월 초지를 굽힘없이 혈투를 벌여야 하는 민족해방의 길을 끝까지 갈수 없었다는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오늘도 조국과 인민앞에 지닌 성스러운 사랑감으로 온넋을 불태우시며 라자구와 로혹산, 천교령의 험준한 산밭들을 헤치시고 만년시련을 타개해나가시던 아버지수령님의 고귀한 헌신의 세계, 항일무장투쟁의 만년시련은 자주의 가치를 높이 든것이 얼마나 정당했인가를 말해주고있다.

라자구오지에서 끓여주지 않

고 얼어죽지 않고 총탄에 맞아죽지 않은것은 기적중의 기적이라고 말할수 있다고 하신 수령님의 회억과 더불어 항일혁명력의 간고함을 피칠레 깨우쳐주는 로혹산의 전설, 혁명이 천교령의 방설속에 그대로 매장되어 영영 자취를 감추느냐 마느냐 하는 운명적인 시각이 도래했던 제1차 북만민정, 수령님께서 이런 행군의 력사를 유산으로 가지고있는 인민은 어떤 힘으로써도 정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시며 뜨겁게 추억하신 고난의 행군...

이 존엄하고 간고치절한 시기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리가 주저않으면 조선이 다시 소생하지 못한다는 송고한 자각, 설사 하늘이 무너지는한이 있더라도 기를 쓰고 살아서 혁명을 해야 한다는 성스러운 사랑감, 인민의 운명을 위한 높은 책임감으로 심장을 꿰어치며 불사신처럼 일어서곤 하시었다.

간고한 항일대전의 그 나날 우리 수령님께 수령나 힘이 되고 의지가 된것은 만경대교향집이었다.

《항일의 이십성상 눈보라속에 어느 한때 이 교향집에 있었으셨다》라는 《만경대의 노래》를 부를 때 어이하여 겨레의 가슴 격정에 젖어드는것인가.

달밝은 밀영의 밤 우등불가에서 위대한 수령님들 마음속에 안아보시던 아름다운 만경대, 그것은 단순히 나사자란 교향에 대한 추억이 아니었다.

위대한 인민을 알게 하고 인민을 위한 성스러운 혁명의 길에 자신을 세우준 만경대가문의

송고한 뜻에 끝까지 참뉘리라는 강렬한 지향과 불타는 의지가 《사항기》의 선율이 되어 울려 퍼졌다.

...
대동강물 아름다운 만경대의 불꽃결에도 잇을수 없네
그리운 산천 광복의 그날
아들이가리라

인민의 아들로서 인민을 위해 복무하고 인민의 삶을 꽃피우는 그 길이 진정 만경대교향집과 맞닿아있었다.

해방된 조국땅에 개신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품결에도 그림던 만경대교향집을 지척에 두시고 강선의 로동계급을 먼저 찾으신것도 한없이 거룩한 조국판, 인민사랑의 세계에서도였다.

인민을 제일로 중시하고 인민의 존엄과 권리를 최상의 높이에서 빛내여주시려는 아버지수령님의 송고한 뜻에 의해 공화국인민들은 공장의 주인, 주인, 나라의 주인으로 떠받들려지게 되었고 조국을 수호하고 창조와 번영의 년대기를 엮으며 영웅인민으로, 자력경쟁의 강자, 창조적 거인으로 더 높이 솟구쳐오르게 되었다.

인민에 대한 사랑,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천품이시고 그의 모든 사상과 령도, 사색과 활동의 출발점이었다. 험난한 길을 걸으시여도 인민을 위하여, 새로운 로선과 정책을 내놓으시여도 인민을 위하여, 로고와 심혈을 바치시여도 인민을 위하여, 바로 이것이 아버지수령님의

한평생이었다.

만경대와 더불어 빛나는 아버지수령님의 인민에 대한 송고한 뜻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모시어 더욱 찬연히 빛을 뿌리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아버지수령님으로부터 만경대 일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들으시며 만경대가문의 뜻과 위업을 빛내어 나갈 의지를 굳히곤 하시었다.

살구꽃 활짝 핀 어느해 이른봄 위대한 수령님께서 새 조국건설로 매우 분망하신 속에서도 장군님과 함께 만경대를 찾으신적이 있었다.

그날 만경봉에 오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만경대는 경치만 보고 아름답다고 하는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싸운 만경대사람들의 마음은 더 아름다웠다.

만경대일가분들의 송고한 뜻을 고결한 생애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었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장군님께 만경대사람들의 뜻을 이어서 나라를 위하여 인민을 사랑하는 참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언제나 그때 일을 감회깊이 돌이켜보시면서 백두산과 만경대가 다 나의 정든 고향이라고 하는것은 백두산과 함께 만경대에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만들어 조선을 빛내어 나갈 원대한 포부가 싸드고 자라났기때문이라고 교시하시었다.

백두산과 함께 만경대를 정든 고향으로 여기시며 위대한 수령님의 송고한 인민관을 그대로 안으

시고 인민사랑의 정치를 펼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품속에서 인민이라는 부름이 가장 고귀하고 신성한것으로 공지높이 불리워졌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가 당과 국가활동의 초석으로 되어 로동당시대를 격동과 환희로 끌어받치게 하였다.

인민을 하루빨리 잘살게 하자!, 이 송고한 일념으로 온넋을 불태우시며 폭우가 쏟아지는 곳 온넋도, 별빛이 내리쬐이는 삼복의 계절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현지지도의 길을 걷고걸으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이 화창한 4월의 명절과 더불어 천만의 심장을 더욱 뜨겁게 하여주고있다.

오늘은 경애하는 김정원수님께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열화같은 인민사랑을 그대로 인민들에게 안겨주고계신다.

만경대일가분들의 송고한 뜻을 안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에 대한 사랑과 헌신이 떠받들려 어떤 전설같은 사변, 감동깊은 일화들이 펼쳐졌는가 공화국인민들은 지난 10년세월을 돌이켜보며 다시금 심장으로 절감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사상을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정식화하시고 그 혁명적본질을 인민대중제일주의로 구현한 경애하는 김정원수님.

과연 그 언제 인민이라는 소박한 이름이 수령의 위대한 사상과 나란히 불리워진적이 있었던가. 진정 공화국인민을 수령님과 장군님의 영상으로 그려 새겨안으

고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인민을 받들어나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한 정치리념에 의해 이런 감동깊은 력사의 이야기가 생겨난것이다.

인민을 위한 열사복무가 혁명적 당풍으로, 국풍으로 되었고있는 공화국, 정세가 엄숙할수록 더욱 뜨겁게 인민을 품어안으시고 인민의 리익을 절대시하느라 천사만사를 복종시키가시는 위대한 태양의 빛발아래 자연의 대광림과 세계적 인 대제양도 이 땅의 인민을 굴복시키거나 놀래울수 없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인민을 위해 큰물이 지지 않은 대청리의 감랑길을 제일먼저 헤치시고 립시방들로 세운 위험천만한 협곡철길도 서슴없이 건느시는 모습을 TV에서 보이며 인민들은 얼마나 눈시울을 뜨겁게 적시었던가.

지금도 공화국인민들은 당장건 75돐을 맞이하던 경축의 밤을 잊지 못해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 온 한해 인민사수, 인민보위로 심장을 불태우시고 오호려 인민들에게 고맙다고 거듭거름 마음속고백, 마음속칭찬을 터놓으시었으니 진정 이러한 위대한 아버지, 대성인을 모시고있는 이 땅의 인민이아닐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인민이다.

경애하는 그이께서 나는 우리 인민의 하늘같은 믿음을 지키는 길에 설사 온몸이 찢기고 부서진다 해도 그 믿음같은 목숨까지 바쳐서라도 무조건 지지것이고 그 믿음에 끝까지 충실할것을 대신 한번 이 자리에서 엄숙히 확인한다 하고 하실 때 경축의 밤은 더욱 더 크나큰 격정과 흥분의 도가니로 풀어버지게였다.

인민을 억척으로 지키고 더 높이 떠받들며 부름없이 잘살게 하는것을 제일사명으로, 숙원으로 간직하시고 인민에 대한 사랑의 정초 력사의 가치를 창조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속에서 지금과 같이 어려운 때에 온 나라 어린이들에게 첫째품을 비롯한 영양식품을 공급하고 학생들에게 교복을 해입히는것이 로동당의 정책으로, 영원한 국책으로 선포되는 회한한 현실과 인민의 행복의 별천지들이 우후죽순처럼 솟아나는 사면들이 립이여 다발적으로 펼쳐져 세상사람들의 부러움과 찬탄을 초시곳였다.

인민의 존엄이 하늘에 닿고 누리는 행복이 끊이지 않을수만 인민의 가슴속에 더욱 강렬히 분출되는 것은 바로 자기들이 누리는 존엄과 행복이 절세위인들과 만경대교향집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는 격정의 마음이다.

그 열화와 같은 마음을 안고 4월의 봄명절을 맞은 인민은 만경대교향집을 우러르며 감사의 노래, 고평애의 노래를 삼가 부르고있다.

본사기자 리 경월

겨레의 통일속망을 이루어주시려고 (5)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나라가 분렬된 첫 시기부터 남녘동포들을 어느 한시도 잊지 않으시고 마음을 많이 쓰시었다.

나라가 해방된 이듬해 1월 평양에 찾아온 서울신문사 기자들을 또다시 저택에서 만나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리들이 비록 서울에는 가지 못하지만 내 마음은 언제나 남조선동포들에게 가있다고, 우리가 목숨을 걸고 빨치산투쟁을 할 때도 전조선을 해방하기 위해서라도 가급적 북조선방어를 위해서가 아니었다고 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서로 만나지는 못하지만 남조선인민들을 반드시 잊지 않는다는것을 꼭 전해달라고 하시었다.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남녘동포들이 당하는 불행과 고통에 대해 그 누구보다 가슴아파하시며 그것을 가서주사기 가슴도 마음쓰시었다.

남녘백발농민들에게 사랑의 생명수를 보내주신 사랑의 조치는 오늘도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나라가 해방되어 첫봄이 왔을 때 북녘의 농민들은 땅의 주인이 된 기쁨으로 설레이고있었으나 남

언제나 남녘동포들을 생각하시며

비와 수백여의 세멘트를 비롯한 각종 자재와 2만여톤의 로력을 들여 이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시도록 해주셨다. ... 우리는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이시야말로 진정한 우리 인민의 령도자이시며 오직 그의 품속에서만 남녘조선의 겨레들이 행복하게 살수 있다는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라고 회상했다.

북남사이에서 오가는 혈육의 정을 달가와하지 않는 외세와 남조선통치세력에 의해 그후 남녘농민들에게 있어서 생명수나 같은 물줄기가 끊겼을 때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남녘백발농민들을 생각하시어 관계수물 다시기 위한 필요한 모든 대책을 세우도록 하시었고 주체37(1948)년 6월 북조선인민위원회 재수지의 관계용수를 남조선연백지방에 보낼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도록 하시었다.

남녘농민들에 대한 아버지수령님의 뜨거운 사랑과 크나큰 은정이 깃든 결정의 그 크기를 잘 보여주고 있는 사진은 그 단면이다. 남녘땅은 세찬 감격으로 파도쳤다.

그해 농사철에 또다시 남녘백

에는 관개수가 흘렀고 농민들은 눈앞을 다투어 물속에 뛰어들어 《물이야, 물, 장군님께서 보내주시는 물이 왔소!》 하며 두팔을 높이 들고 《김일성장군 만세!》를 부르며 또 불렀다. 그리고 《이 은혜를 무엇으로 다 갚겠소, 김일성장군이 아니면 저수지 어떻게 샅샅이 다 보수한다.》라고 목메어 말하며 수령님께 감사의 편지도 삼가 올렸다.

38° 선을 넘어 남녘동포들에게 간직하신 정감속에 이르러 해아리시여 그 해결책을 세워주시신 위대한 수령님이시었고 서울시민들의 떨감증세를 풀어주시신 위대한 수령님이시었다. 이러한 가슴뜨거운 이야기들은 남녘동포들을 언제나 잊지 않으시고 마음을 써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사랑과 은정을 보여주는 일단의 반부인민들에게도 천 만m, 신 한 켤레가 귀한 때였지만 남녘동포들부터 생각하신 수령님이시었다.

또한 전기가 없어 남조선인민들이 볼도 보지 못하고 얼마 되지 않는 공방마저 문을 닫게 된다는것을 아시고 전기를 보내도록 하시

주체63(1974)년 어느날 재고 하시었다.

미동포 립창형선생이 공화국 위대한 주석님을 직접 방문하였다.

그가 평양으로 오게 된다는 남다른 사연이 있었다.

어느날이 립창형선생은 세계적인 물리학자의 한사람인 알버트 아인슈타인과 수와 이야기를 나누는적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교수는 조선의 김일성주석에 대해 물었다.

그후부터 립창형선생의 마음속에는 만사람이 숭배하는 위대한 주석님에 대한 존경과 흠모심이 더욱 깊이 자리잡았고 그를 뵈고싶은 마음을 금할수 없어 마침내는 평양행을 하게 되었고있었다.

림창형선생이 평양에 체류하고 있던 어느날 위대한 주석님께서선 친히 그를 만나주시었다.

따뜻한 동포애의 정으로 립창형선생을 반가이 맞으신 위대한 주석님께서선 그에게 먼 이국에서 통일을 위해 수고를 많이 한다고 하시며 우리 함께 힘써나아가는 민족의 전도와 통일문제에 대하여 의논하자

함께 손잡고 조국을 통일하자고 하시며

만나뵈고 것처럼 만나에 밝으시고 너무도 겸허하신 그의 인품에 끌리어 립창형선생은 아인슈타인이 주석님에 대하여 알고싶어하였다는것까지 죄다 말씀드리었다.

림창형선생의 이야기를 들으신 위대한 주석님께서선 그에게 우리 함께 손을 맞잡고 하루빨리 조국통일을 이룩하자고 절정하게 교시하시었다.

민족의 통일을 위하여 기울이시는 위대한 주석님의 로고와 심정이 어려웠는데도 사자구구 새겨안으며 그는 주석님을 민족의 사표(덕행)이 높고 스승으로 되는 사람으로 삼고 눈에 흠이 들어가지 않게 지 통일사업에 매진하겠다고 정중히 말씀드리었다.

그후에도 립창형선생은 여러 차례 공화국을 방문하여 위대한 주석님을 만나뵈고 민족의 대단결과 통일을 성취하는데서 나서시는 문제들에 대하여 정답을 찾게 되었으며 여생을 초췌처럼 태우며 통일을 위하여 살았다.

본사기자